

지상 갤러리 - 그림으로 조각으로 만나는 호랑이



돌조각가 오재현(47)이 파주 헤이리의 갤러리 더 차이에서 화강암으로 만든 호랑이 조각 15점을 1월 10일 까지 선보인다. 오재현작 '합박웃음'.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이라는 대목처럼 수원 팔달사 명부전에는 호랑이가 담배 피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통도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십이지변(十二支辨).



김로탱의 부분도. 이 작품은 김로탱화에서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호랑이는 탱화 중 김로탱화에 가장 많이 등장한다.

내가 무서워? 나, 네가 무서워

때론 친근한 아저씨 같은 모습으로, 때로는 혐악한 공포의 대상인 호랑이는 불교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담배 피는 호랑이부터, 산신을 수호하는 호랑이, 행복 바이러스를 안겨다 줄 것 같은 호랑이 모습까지 호랑이는 우리 곁에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사찰의 벽화부터, 호랑이 그림 및 조각 전시회까지 경인년을 맞아 우리 주변의 호랑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경복궁 영추문에 있는 백호도.



동국대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산신도 이 산신도 다른 산신도와는 달리, 여미와 새끼로 보이는 호랑이 두 마리가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 불화는 관하당 종인이 라는 승려화사가 그린 것으로, 1900년을 전후해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인물.

전통불교천지대왕종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신앙의 대통합 선포



이 땅의 모든 종교신앙인들이여! 진리의 문을 활짝 열고 종교의 벽을 헐자.
반만년 민족신앙을 오늘 다시 숭앙하자. 한겨레 한터에서 한 이치로 함께하자.

이 땅의 존귀하신 종교 신앙인 들이여!

국조 단군성조께서 나라를 세우신 이래 수많은 종교가 탄생하여 3생을 오가며 절대적 존재로 때로는 미혹한 모습으로 성현, 도사, 도인, 신주, 만신, 신발 등으로 불리며 8부중생과 더불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력화된 기성종교에 밀려서 미신이란 이름으로 폄하되고 소외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련의 현실 속에서도 역사와 더불어 종교로서 존재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한국불교의 한축을 이끌어 온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인 석연 대종사께서 전법에 진력하시며 이 땅의 전통(민속)종교인 및 철학인들의 권익과 보장책을 숙고하던 중, 이 세상에 절대적 유일신은 없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불교의 심오한 진리와 전통민속 신앙을 접목하여 대도를 구성하고 홍익인간 이화세계사상으로 극락정도를 구현하는 새로운 회상을 열고자 전통불교천지대왕종을 창종하여 선포하니 우리모두 이 결사에 동참하여 교화의 대열에서 함께하고 역랑과 사명을 다해 새로운 세상을 열시다.

전통불교천지대왕종과 함께하실 신앙인 여러분을 열리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종교의 성직자, 신도, 교도, 법사, 전도사, 교회사, 포교사, 철학인, 도사, 도인, 작명가, 신발, 만신님들 차별없이 환영합니다.

- 입종 및 입회원서 접수 : 본종 총본산 수련도장 불탑사 의 종단에서 지정한 교구청 및 특설사무처
- 동참 특전 (소정의 서류제출 원비하고 등록한 분에게는)
 - 본 종단 의식교전 및 종현 종법 제공
 - 관할관청에 등록하여 재산관리 세무회계를 주선
 - 체계화된 교육으로 종교지도자로 양성함
 - 사찰, 사암, 포교당등록증, 법위증, 사증 등을 교부
 - 종단의 각종 회의에 참석 특전, 중요임원 출마권과 선출권 부여함
 - 행정, 교육, 운영 관리에 뜻 있는 분 특별우대함

총본산 수련도장 설악산 불탑사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노화리 산 100-1번지 / 전화 033)671-7751 / 핸드폰 019-248-7751

개창주(開創主) 석연 대종사 창종위원 : 지선, 무생, 무풍, 천풍